



제 1부 (14:00 – 15:40)

사회: 홍재웅

14:00 - 14:10

개회사

오은영 (외국문학연구소장)

14:10 - 14:50

기조강연

곽효환 (전 한국문학번역원장)

‘한국문학의 세계화’에서 ‘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’으로

-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의 미래

- 시인, 전 한국문학번역원장, 고려대 문학 박사. 시집 『인디오 여인』, 『지도에 없는 집』, 『슬픔의 뼈대』, 『너는』
- 고대신예작가상, 애지문학상, 편운문학상, 유심작품상, 김달진문학상 등 수상

14:50 - 15:40

발표: 송병선 (울산대)

로베르토 볼라뇨의 『2666』과 21세기 세계문학의 흐름

- 한국외대 스페인어과, 하베리아나 대학교 문학 박사. 울산대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
- 보르헤스 『픽션들』, 『거미 여인의 키스』, 『염소의 축제』 등 번역. 제11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

제 2부 (16:00 – 17:40)

사회: 김형래

16:00 - 16:50

발표: 이현경 (한국외대)

번역의 언어로 본 이탈리아 문학

- 이탈로 칼비노 연구로 한국외대 비교문학 박사. 칼비노 『이것이 인간인가』, 『보이지 않는 도시들』, 『표범』 번역
- 이탈리아 대사관 주관 제1회 번역문학상, 이탈리아 정부 수여 국가 번역문학상 수상

16:50 - 17:40

발표: 홍재웅 (한국외대)

스칸디나비아어에서 한국어로

- 번역의 경계와 가능성, 그리고 불가능성

-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스트린드베리 연구로 문학 박사.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학과 교수
- 윤 포세 『3부작』, 요나스 하센 케미리 『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거네』, 『몬테코어』 등 번역